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는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 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ght-weight Roof Structure of Urban Hanok

- Focused on the Cases in Jung-gu, Daegu -

박 준 현

Park, Jun-Hyun

(경북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공학석사)

조 재 모*

Cho, Jae-Mo

(경북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부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weight-lightening phenomenon of the roof structure of some Hanok(韓屋),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found from the survey on the distribution and actual state of urban traditional houses existing in the whole region of Jung-gu, Daegu, Korea.

As a result of judging from the pre-test of building registers for the research area, approximately 5,000 wood structure houses were found. A field data survey based on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re are 1,752 Hanok houses. And the further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by roof structure type shows that about 35% of them underwent weight lightening.

While this kind of light-weight Hanok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raditional Hanok, they also show the survival method of Hanok that reflects the economical and technological phases of that period. It is expected that deeper understanding on the urban traditional houses will be possible through carrying out in-depth researches on techniques of the light-weight roof structure of the urban traditional houses that are supposed to have functioned as dwellings as commercial products.

주제어 : 대구, 도시한옥, 상품주거, 상부구조, 경량화

Keywords: Daegu, Urban traditional houses, Dwelling as a commercial product, Superstructure, Weight lighten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옥은 전통적인 주택 유형으로서 근대기 이전에는 경쟁 주택유형이 없다시피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대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식목구조 주택, 서양식

벽돌 조적 주택, 콘크리트조 주택 등과 시장 속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특히 급격한 도시주거 수요의 증가 상황에서 한옥 목구조 기술은 경제성과 편의성 등의 직접적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였으며, 식민지적 근대¹⁾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근대-근대, 토착-외래 등의 문화적 대립항은 물론, 위생의 담론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기 당시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한 기술이었던 한식 목구조 기술은 스스로 시장 속에서

* Corresponding Author : zozemo@knu.ac.kr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옥 정보는 '전국단위 한옥조사를 위한 시범조사 및 DB구축 - 대구광역시 중구일대 한옥 현황조사-(과업기간: 2012.05-08, 발주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를 통해 수집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음.

1) 식민지적 근대의 관점은 <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을 참조하였다.

생존하기 위해 다각도의 변모를 모색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된다.²⁾ 주거는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고 경제·문화·생활·의식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행위 및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주거는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외래 주거문화와 전통적 주거문화가 만나고 적응하는 과정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중구 일대에 현존하는 도시한옥³⁾의 분포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한옥 중에서도 경량식 상부구조⁴⁾라는 특수한 형식을 가지는 도시한옥에 주목하여 이 유형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유와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옥에 대한 최근의 증대된 관심에 힘입어 한옥 건축 및 관련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한옥의 멸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고 있는 도시한옥에 대한 조사 연구는 전통주택과 현대주택 사이의 간극을 잇는 역사적 연결고리로서 뿐만 아니라 전통 주거관을 내포하는 바람직한 현대 주택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한옥을 막연한 보존과 계승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시장 속에서 정당하게 경쟁, 발전해 온 주거 유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한옥과 한국의 주택사의 해석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중구 일대이며, 시간적으로는 이 지역에 도시한옥이 건립된 주요 시기인 193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건축 유형으로는 도시한옥으로 지칭되는 사례들 중 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는 도시한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도시한옥에 대한 기초연구 및 대구광역

2) 한옥의 시장경쟁에 대해서는 <전봉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등 참조.

3) 송인호는 도시형한옥에 대해 전통적인 주거유형인 한옥이 도시주거지라는 새로운 구조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도시형 주택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의 ‘도시형한옥’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송인호 교수 스스로 개념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시한옥’을 대표 개념어로 선택하였다.

4) 경량식 상부구조를 갖는 도시한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2-2절에서 서술하였다. 요약하면 축부 등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기둥과 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식 목구조를 따르되, 천정으로 마감되어 노출되지 않는 지붕부를 경량식 목구조로 간략화하여 지어진 경우를 지칭하고자 한다.

5) 김태영, 『한국 근대기 내륙지방 도시주택의 유형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95, 연구계획서 국문초록 중

시 중구 일대 도시한옥의 대한 조사⁶⁾를 기반으로 도시한옥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구조형식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는 도시한옥을 연구의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가옥들은 심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경량식한옥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 도시주거와 도시한옥

2-1. 근대 도시주거의 등장과 한옥의 변화

한국의 근대 도시주거는 개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항장이었던 부산, 원산, 인천은 물론이고, 개시장이었던 대구 등지가 먼저 근대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개항 이전에는 공적인 행사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것 이외에는 외국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구의 발달은 매우 더뎠고 도시의 근대적 발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개항 이후 항구도시들과 내륙의 일부 도시들의 변모가 시작되었다.⁷⁾ 또한 이 시기에 서양식 건축이 소개되면서 한국 내 유입된 외래문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일부 상류층과 지식층에 의해 서양식의 주택이 건축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양상을 보면, 근대도시의 출현과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 생산양식과 가족제도의 변화, 기독교사상이 보급되면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문명의 보급, 생활개선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근대주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들은 전기, 전화 등의 근대적 설비를 포함한 여러 시설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전력이나 상수도과 같은 설비들이 도시주택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근대기 도시주거는 이와 같이 근대화와 도시화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차용된 외래 건축물은 일본식이 대다수였는데 이는 근대기 한국 건축이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 건축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옥 건축기술과 비교적 가까운 기술 유형이었던 일식

6) 대구 중구 도시한옥에 대한 조사는 ‘전국단위 한옥조사를 위한 시범조사 및 DB구축 - 대구광역시 중구일대 한옥현황조사-’(과업기간: 2012.05-08, 발주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과업수주기관: 한국건축역사학회, 과업실행기관: 경북대학교 건축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북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부교수 조재모)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7) 윤정숙, 유옥순 외, 『한국 주거와 삶 : 근대주거와 삶』, 교문사, 2007, pp.61-65

Fig.1 Urban Hanok area of Seoul, 1930s (source:archforum)

목조 기술이 기술인력의 유입과 함께 어렵지 않게 수용되었던 측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⁸⁾

사회적으로는 상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식민통치자들의 농촌 착취가 근원이었겠지만 활기를 띠게 된 도시 경제가 이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였다. 도시에 인구가 늘고 경제적 비중이 커지자 식민 정부는 도시 정비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였는데, 1934년에 총독부에 의해 발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그것이다. 사업 목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의 지구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는 도시에서는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법규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지의 확장이 1930년대 말 이후 크게 늘어났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자 총독부는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여 장기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구개정사업으로 없어진 가옥에 더하여 각종 사업으로 빼앗긴 대지가 많이 발생하고 토지를 잃은 사람들의 도시 유입이 늘어나 도시의 주택난은 한층 심각해졌다.

이와 같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택난은 1930년대 이후 들어서 주택의 대량생산을 촉진시키고 주택 건설이 비로소 공급자와 수요자로 분리되어 소규모주택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집장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⁹⁾

<동아일보 1939년 6월 28일> 시내가옥매매증가, 가격등극도
마이동풍, 경성부내 금년 주택이동상황 격증, 매매의 격증과
가격의 폭등 : ...이런 반면에 집장사들은 많은 이익을 보며

8) 윤정숙, 유옥순 외, 위의 책, pp.65-74

9)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정비사업이 시작된 1920년을 전후로 토지소유와 그에 관한 권리, 의무가 정립됨에 따라 소작마저 지을 수 없게 된 유민들이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朝鮮年鑑에 발표된 주택보급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30년대 전반기에는 10-15%의 주택부족률이 기록되고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부터는 부족률이 20%이상을 기록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전시기밀이라는 이유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제4권』, 1981, pp.175-185>

채전이나 큰 주택을 사서 수십, 수백 개의 집을 지어 파는데, 기둥이 서기 전부터 원매자가 답지하는 형편으로 집이 없어 팔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건축에 종사하는 목공토역과 그 밖에 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는 형편이다...¹⁰⁾

1930년대 이후 도시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한옥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하며, 특정한 명칭도 없다. 개량전통주택¹¹⁾, 개량한옥, 도시형한옥¹²⁾ 등으로 불리는 도시한옥은 1930년을 전후로 하여 지어진 주거형식으로 도심 및 주변부에 집단적으로 자리하는 중소규모의 한옥을 의미한다. 전통한옥과는 구별되며, 사변형의 작은 필지에 대량으로 지어진 한옥으로 이 도시한옥의 등장과 일반화는 1930년대를 전후한 도시의 경계확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필지가 형성되고 필지의 크기에 따라 단위별로 주택이 건축되어 공급되었는데, 이렇게 대량생산에 의해 공급되었으므로, 주택은 표준화의 성격을 가졌으며 개량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도시 곳곳에 폭넓게 자리하게 되었다.

2-2. 경량식한옥의 개념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한옥은 목조의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구조적 형식을 따르는 유형적 공통점이 있는 대상을 지칭하며,¹³⁾ 그 중 대략 1930년을 전후하여 건설되기 시작하여 1970년경¹⁴⁾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지어진 주거형식으로 도심 및 주변부에 집단적으로 자리하는 중소규모의 한옥을 도시한옥으로 부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범위인 대구 중구의 도시한옥 분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부는 한식 목구조의 전형적인 기둥, 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붕부 구조에서 한식 서까래를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유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이들 사례는 처마 아래에 널을 가설하여 처마를 가리고 있어 외관상으로 서까래의 형태를 판단할 수 없는 형식이라 주목된다.¹⁵⁾

10) 박철진,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 석론, 2002, p.34 재인용

11) 김란기, 「근대한국의 토착민간자본에 의한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 일제하 개량한옥 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권 제1호 통권1호 pp.106-116, 1992.에서는 부제로는 개량한옥이라 한 반면 본문 내용 중에는 개량전통주택이라 쓰고 있다.

12) 송인호, 앞의 논문.

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 주거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연구, 2011>의 한옥에 대한 정의도 이와 같다.

14) 도시한옥의 건설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시점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도시의 경우 서울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까지 도시한옥의 건립이 유행하였다.

Fig.2 Eaves of light-weight structure Hanok(left) and traditional Hanok(right) of the case of Namsan-dong 243-8

Fig.3 Architectural feature of Light-weight Hanok

Fig.4 Typical definition of urban Hanok

Tab.1 Comparative table of light-weight to other types

	spatial layout	size	body structure	roof structure	timber condition	roof type
traditional Hanok	◎	◎	◎	△	○	◎
light-weight Hanok	↑	↑	↑	↓	↓	↑
simple wood frame house	○	○	△	◎	◎	○

◎: almost same ○: similar △: different

15) 물론, 이러한 구조 유형이 대구지역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의 도시한옥에도 이러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다른 도시한옥유형과 비슷한 배치, 공간 구성, 규모, 목가구 형식, 지붕 형태와 재료 등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서까래 부분을 가려 외관상 보이지 않게 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유형의 대상들은 지붕부 구조체를 경량으로 사용하고 서까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옥의 유형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Tab.1>16)에서와 같이 전통식한옥, 간이한옥 등 다른 한식 목조주택의 모습과 멀리 않은 범주에 속해 있다. 이렇게 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는 한옥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본 연구에서는 ‘경량식 한옥’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외래주택 유형과 건축기술의 유입, 그리고 새로운 건축자재의 도입으로 한국의 전래주택 한옥은 형태적, 기술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옥의 시장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량식 한옥은 보, 도리, 동자주 등을 사용하되 축부와 지붕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붕구조의 별도 시공이 가능하여 경량화된 각재만으로 지붕틀이 완성되며 몸체와 구조적으로 분리 시공이 가능하였다.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으로는 벽체와 목조지붕이 만나는 접합부에 기존의 서까래와 부연이 사라지면서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지붕 처마 밑은 나무널을 덧대는 방식으로 마감되어 있다.

결국 경량식 한옥17)은 한옥의 배치와 공간구성과 같은 평면적 형식은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전통식 한옥보단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재료와 상부목가구조로 지어진 집으로 정리할 수 있다.18)

3. 대구 중구의 도시한옥과 경량식 한옥

3-1. 대구 중구 도시한옥의 조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발견된 경량식 상부구조를 갖는 한옥 사례를 주목하게 된 것은 ‘전국단위 한옥조사

16) <김대일, 「1950년대 서울지역 간이한옥의 조사연구」, 서울대 석론, 2009>의 간이한옥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량식 한옥과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두 유형은 형성시기와 지붕형식, 시각적 요소 등 두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17) 본 연구는 근대이후 대구시 지역의 한옥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 때문에 ‘경량식 한옥’을 도시한옥의 범주 속에서 고찰하였지만, 이러한 구조적 유형은 도시 외 지역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량식 한옥’을 도시한옥의 한 유형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전국적 분포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4장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처마부 구성에서 동자주 형식의 짧은 부재와 판재를 대어 지붕부 구조를 숨긴 형태는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 김대일, 위의 논문, p.24

Fig.5 GIS map of the spread of 1,752 urban Hanok in Jung-gu, Daegu

를 위한 시범조사 및 DB구축 - 대구광역시 중구일대 한옥현황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조사사업은 한옥자원에 대한 도시건축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지역 및 전라남도 나주시를 대상으로 2012년 시작되었으며, 향후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한옥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정작 현재까지 남아있거나 새로 건축되는 한옥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를 제외하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옥 관련 통계자료는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분적, 단발적으로 구성된 자료들이 대부분으로 서울 및 일부지역(전주, 경주 등)을 제외한 지역의 한옥실태조사 이외는 데이터가 부재하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한옥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9,500여 채의 한옥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계를 신뢰한다면 대구광역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의 한옥이

Tab.2 Regional distribution of Hanok (data fro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city/province	2008	2009	2010	2011
Seoul	18,186	18,186	9,882	-
Busan	3	0	0	0
Daegu	138	925	0	9,428
Incheon	1,914	0	0	16
Gwangju	43	44	0	4,485
Daejeon	82	82	0	-
Ulsan	26	0	0	1,869
Gyeonggi	447	603	222	398
Ganhwon	914	937	96	589
Chungbuk	25	49	43	173
Chungnam	739	181	585	588
Jeonbuk	21,700	21,700	1,409	11,163
Jeonnam	3,627	3,566	1,669	15,764
Gyeongbuk	1,781	18,929	18,929	13,873
Gyeongnam	782	832	2,874	3,894
Jeju	-	397	441	2,050
Total	50,407	66,431	36,150	64,290

소재하는 지역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기반한 1차적 조사 데이터 값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Tab.3 Regional distribution of Wood house, Urban Hanok &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district(Dong)	wood house	urban Hanok	L.W. Hanok	district(Dong)	wood house	urban Hanok	L.W. Hanok	district(Dong)	wood house	urban Hanok	L.W. Hanok
Gyesan-dong 1ga	24	6	0	Dongin-dong 2ga	49	13	8	Su-dong	14	7	0
Gyesan-dong 2ga	28	17	1	Dongin-dong 3ga	144	42	30	Suchang-dong	33	12	4
Gongpyeong-dong	37	3	2	Dongin-dong 4ga	284	89	45	Sijangbuk-ro	12	6	2
Gyodong-dong	28	4	1	Dongil-dong	1	0	0	Wanjeon-dong	5	0	0
Namsan-dong	1,721	608	238	Munhwa-dong	12	0	0	Yongdeok-dong	2	0	0
Namseong-ro	17	4	0	Bongsan-dong	257	86	26	Ingyo-dong	46	23	4
Namil-dong	14	4	0	Buknae-dong	19	5	0	Janggwan-dong	8	2	0
Dalseong-dong	243	124	67	Bujseong-ro 1ga	14	1	0	Jeon-dong	6	0	0
Daebong-dong	722	330	89	Bujseong-ro 2ga	9	2	0	Jong-ro 1ga	35	8	1
Daesin-dong	362	108	35	Samdeok-dong 1ga	73	11	4	Jong-ro 2ga	24	11	1
Dae'an-dong	17	2	2	Samdeok-dong 2ga	98	36	12	Taepyeong-ro 1ga	18	11	0
Deoksan-dong	4	0	0	Samdeok-dong 3ga	160	71	28	Taepyeong-ro 2ga	14	0	0
Dowon-dong	5	0	0	Sangseo-dong	2	0	0	Taepyeong-ro 3ga	12	3	0
Dongmun-dong	14	4	0	Seonae-dong	22	6	2	Pojeong-dong	10	0	0
Dongsan-dong	123	45	7	Seomun-ro 1ga	21	8	1	Haseo-dong	1	0	0
Dongseong-ro 1ga	8	0	0	Seomun-ro 2ga	22	9	0	Hyangchon-dong	23	1	0
Dongseong-ro 2ga	9	2	0	Seoseong-ro 1ga	28	11	0	Hwajeon-dong	16	0	0
Dongseong-ro 3ga	16	0	0	Seoseong-ro 2ga	3	1	0				
Dongin-dong 1ga	82	14	5	Seoya-dong	28	12	1	Total	4,989	1,752	616

다. 대구 중구의 도시한옥 연구를 위해선 먼저 정확한 도시한옥의 수를 확인해야 했다.¹⁹⁾

대구광역시 중구의 도시한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주구조를 ‘목구조’로 분류하고 있는 대상 전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한식 목구조를 사용한 한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우선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목구조 목록을 대상으로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 1차적으로 사례를 판별하는 단계이다. 현장조사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이며, 여기서는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확인이 가능한 외형적 특징과 가로 경관을 기록하여 한옥 여부 및 관리 현황을 판별하였다.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에 4,989채의 목조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목록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 확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장조사의 방법으로는 조사시트 작성,²⁰⁾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여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까래, 기둥, 지붕 등의 외관을 중심으로 한옥 여부를 판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도시경관자원으로의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로경관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1차 목록의 4,989채를 상대로 한옥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에는 적어도 1,752채를 한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

3-2. 대구 중구 경량식 한옥의 분포와 유형

조사를 통하여 한옥으로 판단된 1,752의 한옥들 중 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한옥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616채였으며, 남산동, 대봉동, 달성동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경량식 한옥은 나무널이 가설되지 않은 도시한옥 속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경량식한옥으로 분류된 616채의 가옥을 평면유형별로 나누면 ‘ㄱ’자형의 평면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一’자형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ㄷ’자형과 ‘ㄴ’자형의 평면유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 중구의 도시한옥은 경량식한옥을 포함하여 ‘ㄱ’자형의 평면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 도시한옥의 대표적인 평면유형으로 ‘ㄷ’자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경량식한옥으로 분류된 616채 가옥의 지붕형식은 팔작지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배지붕 비율이 큰 서울

19) 현행 건축물대장 등에서 사용되는 ‘주구조’ 분류에는 한식목구조 등 한옥으로 명시될만한 항목이 없으며 단지 목구조로만 분류되어 있다. 즉, 건축물대장 만으로는 정확한 한옥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 현장조사의 조사항목은 국가한옥센터에서 제공한 조사시트의 지붕정보/외관정보/가로경관정보 세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하였다.

21) 수집된 정보는 DB로 구축되었으며 GIS와 연동하여 지도정보로 표현하는 후속 과정을 거쳤다. 향후 국가한옥센터의 한옥포털 등을 통해 활용될 것이다.

의 도시한옥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Fig.6 Concentrated area of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Tab.4 Plan type of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Urban Hanok		L.W. Hanok	
'ㄱ'type	1,093	62.4%	385	62.5%
'ㄷ'type	101	5.7%	26	4.2%
'ㅁ'type	1	-	-	-
'ㅡ'type	348	19.8%	127	20.6%
others	3	-	1	-
unconfirmed	206	-	77	-
Total	1,752		616	

Tab.5 Roof type of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Urban Hanok		L.W. Hanok	
hipped&gable	1,183	67.5%	409	66.4%
gable	133	7.6%	63	10.2%
hipped	296	16.9%	98	15.9%
others	2	-	1	-
unconfirmed	138	-	45	-
Total	1,752		616	

경량식한옥으로 판정된 가옥의 대표연도를 분석해 보면 1934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 도시한옥과 함께 꾸준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으로 1949년에 대량 분포하는 것은 기록 작성 상 나타난 문제이다.²²⁾ 시계열적으로 보면 전체 도시한옥의 건설량 추이와 경량식 한옥의 추이는 거의 같아, 경량식 한옥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22) 1949년에 경량식한옥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데, 1949년은 대구 부가 대구시로 개칭되는 시점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1949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에 경량식한옥이 집중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이전 시기에 지어진 경량식한옥이 서류상 등재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

Tab.6 Construction development of Hanok and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year	Urban Hanok	L.W. Hanok	year	Urban Hanok	L.W. Hanok
1934	2	1	1964	4	1
1936	1	-	1965	4	1
1939	1	1	1966	4	2
1940	1	1	1967	32	17
1942	1	-	1968	39	14
1943	2	1	1969	27	10
1946	1	1	1970	48	22
1947	12	3	1971	30	13
1948	20	9	1972	36	9
1949	460	161	1973	31	6
1950	50	3	1974	20	8
1951	6	-	1975	38	19
1952	15	4	1976	17	2
1953	12	4	1977	11	6
1954	15	5	1978	12	3
1955	31	9	1979	8	2
1956	36	7	1980	5	2
1957	31	4	1981	17	10
1958	19	2	1982	29	13
1959	54	19	1983	45	22
1960	65	22	1984	24	12
1961	88	41	1985	75	39
1962	14	3	-	258	82
1963	1	-	Total	1,752	616

Fig.7 Construction development of Hanok and Light-weight Hanok in Jung-gu, Daegu

않고 지속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경량식 한옥의 건축특성

4-1. 경량식 한옥의 지붕부 구성

본 절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의 경량식 한옥 616

체에 대한 기초 자료와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한 남산동 143-33, 남산동 685-12, 남산동 2266-9, 남산동 2476-13, 남산동 2611-14, 남산동 2948-6, 달성동 181-23 등 7개 사례를 바탕으로 경량식 한옥의 건축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경량식 한옥은 5량가에 팔작지붕을 선호하며, 전통식 한옥과 외관상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곡, 안허리곡과 같은 곡선이 없고 지붕물매도 일정하다. 또 처마부와 실내 모두 천정을 설치하여 지붕부 구조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지붕의 구조가 의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전통 한옥과 구조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Fig.8 Consistent slope of Light-weight roof (Dongin-dong 4ga 310-5)

Fig.9 Worm's-eye-view of Light-weight roof (Namsan-dong 4ga 2948-6)

전통식 한옥의 지붕은 기와와 서까래 사이에 다량의 흙을 집어넣어 지붕의 곡면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흙의 양이 생각 외로 많으며, 바깥으로 뺀어나가는 처마 깊이 때문에 지붕의 하중을 직접 받는 서까래는 충분한 굵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은 서까래가 지붕을 구성하고 그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구조재라는 점과 육중한 지붕하중을 버티기 위한 안전성의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경량식 한옥 지붕물매는 직선화되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붕물매를 잡기 위해 많은 흙이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는 서까래에 가해지는 하중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경량식한옥의 처마깊이는 건축법규적 문제²³⁾로 짧아졌고 그와 더불어 상부가구의 부재를 경량화하려는 경제적 관점으로 인해 지붕의 직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지붕의 하중은 자연스럽게 한옥의 축부 부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식한옥의 서까래 배열은 평행방사배열²⁴⁾로서 구조

23) 4-2절에서 상론하였다.

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시공도 비교적 간편한 방식이다. 반면 일본식 평행배열²⁵⁾, 방사배열²⁶⁾은 구조적 무리와 시공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량식 한옥의 경우 처마부분에 나무를 덧댄으로써 서까래가 노출되지 않아 서까래에 의한 의장성 보다는 구조적 합리성과 시공의 편의성을 고려한 간편한 평행방사배열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량식한옥의 기본적인 상부목구조는 기야우로구미, 오리옥기구미와 같은 일본식 가옥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10 Roof structure (Namsan-dong 4ga 2948-6)

Fig.11 Rafter shape of Light-weight Hanok (Namsan-dong 2266-9)

경량식한옥의 상부구조가 일본식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서까래의 배열과 같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완전한 일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절충식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로서 한식 지붕구조를 개량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식 지붕구조를 사용했던 것은 의장성을 중시하는 중량 목구조 대신 경량 지붕틀의 경제적이고

24) 지붕의 중앙부분은 평행으로 서까래를 배열하고 귀퉁이 부분에서는 부챗살모양으로 배열하는 것. 팔작지붕 형태에서 자주 드러남.

25) 모든 서까래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것.

26) 지붕면 전체에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

효율적인 성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Tab.7 Eaves, rafter & column of cases of Light-weight Hanok (mm)

case	eaves projection	rafter timber	rafter spacing	column size	column height
Namsan-dong 143-33	480	30×30	400	120×120	2,700
Namsan-dong 685-12	400	45×45	380	120×120	2,500
Namsan-dong 2266-9	500	40×40	350	120×120	2,800
Namsan-dong 2476-13	450	50×50	400	120×120	2,800
Namsan-dong 2611-14	400	45×45	350	120×120	2,750
Namsan-dong 2948-6	420	50×50	350	115×115	2,870
Dalseong-dong 81-23	450	40×40	400	145×145	2,880

Fig.12 Roof structure

Fig.13 Roof section

4-2. 법제도 여건과 경량식 한옥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선택을 추동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량식 한옥이 비교적 고른 시계열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량식 한옥은 적어도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193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이미 시구개정과 지역지구제 등 도시적 관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시가지건축취체규칙(1913)과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등이 마련되어 있었던 시점이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오늘날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폐율, 건축선, 건축재료, 미관, 재해방지 등을 규정한 것이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취체규칙을 더욱 보완해 용도지구나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해방이후의 건축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²⁷⁾

건축 관련 법규는 제정될 때마다, 단점을 보완하거나 더 보충되는 사항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러한 법규상의 변화는 그 당시에 지어진 건축물의 평면, 입면적 요소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건축물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도시한옥에 관련되는 법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선과 주거유형과의 관계에서 두 법령은 모두 처마 등의 구조물이 건축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市街地建築取締規則

1913年 2月 25日(大正 2年) 朝鮮總督府令 第11號

第3條 제1조의 建物 및 工作物の 構造, 設備는 아래 各號의 制限에 따라야 한다.

3. 建物 및 門戶 담벽의 처마끝이나 차일등을 公共道路에 突出시키지 않을 것.

朝鮮市街地計劃令

(1934年 6月 20日 制令 第18號)

第27條 建築線은 市街地計劃區域內에 있어서의 道路幅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行政官廳은 市街地計劃區域內에 있어서 別도의 建築線을 指定할 수 있다.

第28條 市街地計劃區域內에 있어서의 建築物은 建築線에서 突出하여 이를 建築할 수 없다. 다만, 建築物의 地盤面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건폐율에 관한 규정으로 1913년의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서는 지역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8/10의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규정하였으나,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거지역의 경우, 6/10의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市街地建築取締規則

1913年 2月 25日(大正 2年) 朝鮮總督府令 第11號

第3條 제1조의 建物 및 工作物の 構造, 設備는 아래 各號의 制限에 따라야 한다.

1. 建物의 面積은 敷地面積의 1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朝鮮市街地計劃令

(1934年 6月 20日 制令 第18號)

第102條 第48條중 10분의 7이라고 함은 住居地域內에 있어서 는 10분의 6, 商業地域內에 있어서 는 10분의 8로 한다.

셋째, 함석, 물받침 및 흙통을 설치하도록 1913년 건축취체규칙부터 규정되어있다.

市街地建築取締規則

27) 김연주, 「1920년대-1950년대 서울지역에 지어진 주거용2층 한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론, 2001, p.10

1913年 2月 25日(大正 2年) 朝鮮總督府令 第11號

第4條 제1조의 市街地 중 警察部長(京城에 있어서는 警察總長 이하 동일)이 指定한 地域內에서의 建物 또는 工作物의 構造・設備에 관하여는 前條에 의하는 外에 아래 각호의 制限에도 따라야 한다.

5. 公共道路에 沿한 建物의 처마끝에는 물받침 桶을 설치하고 雨水는 堅桶에 의하여 이를 排水할 것.

넷째, 건축물의 처마가 1m를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건폐율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朝鮮市街地計劃令

(1934年 6月 20日 制令 第18號)

第31條 本令에서의 用語는 다음의 例에 의한다.

1. 건축面積이라 함은 建築物의 水平斷面에 있어서 外壁의 또는 이에 대신할 기둥의 中心線內의 면적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다만, 地層으로서 그 外壁의 높이가 地盤面 上 2미터 이하의 부분의 面積은 이를 建築面積으로 보지 아니한다.

처마(軒), 차양(庇) 枯出緣의 種類가 前項의 中心線에서 1미터를 초과하여 突出하는 경우에는 그 外端에서 1미터를 後退하는 線을 前項의 中心線으로 본다.

Fig.14 Iron sheet skirt-roof (Gyesan-dong 1ga 80 & Namsan-dong 2614-7)

이와 같은 건축관련 법규의 신설은 당시 도시주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도시한옥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도시한옥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²⁸⁾

건축선의 제한과 처마깊이에 대한 법규는 도시한옥의 상부가구 변화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건축선의 제한으로 처마가 건축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소규모 필지에 지어지는 도시한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처마의 깊이만큼을 후퇴하여 벽체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었고, 1934년 전후로 변화된 건폐율 관련 법규는 처마 관련 법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당시 민간주택 건축업자는 이 건폐율 관련 법규로 인하여 줄어든 한옥의 협소한 내부공간을 늘리기 위해 처마의 길이를 줄여

Fig.15 Eaves projection of traditional Hanok(left) and Light-weight roof structure Hanok(right)

내부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폐율도 충족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처마깊이 관련 법규는 광복이후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⁹⁾ 짧아진 처마깊이로 인하여 생기는 비 들이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처마 끝에 물받침 및 홈통을 설치하고 안마당으로는 길게 함석을 설치하여 짧아진 처마깊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렇듯 당시의 한옥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으로 인하여 처마의 길이가 짧아지고, 부재의 크기가 작아지며 처마 밑에 나무널을 대는 등의 전통적인 한옥 원형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3. 경량식 한옥의 의장성 추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붕부 구조의 경량화를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당시의 건축법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태도는 경량식 한옥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시장은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의장성의 추구를 통한 상품성의 획득 역시 건축비 절감과 함께 주택 시장 속에서 한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29) 처마깊이에 대한 특례를 건축법에서 살펴보면 일반건축물의 처마깊이가 1m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건폐율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한옥의 경우에는 2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한옥의 경우에는 2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건축법은 2001년 9월 15일 신설된 건축법에서 '한옥은 추녀를 2m까지 뺄아도 건축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한옥은 한식기와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다.'로 변경되어진다.

28) 김연주, 앞의 논문, p.11

도시에 지어진 도시한옥의 경우 필지의 크기에 따라서는 6-7호에서 많게는 30-40호씩 같은 유형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당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은 주택의 상품적 가치가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중구 경량식 한옥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맞배와 우진각지붕이 대부분인 타지역의 간이한옥에 비해 대구 중구지역의 경량식 한옥은 의장성이 강한 팔작지붕의 지붕형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경량식 한옥은 서까래, 도리 등 지붕부 구조체의 의장성 대신 시공성과 경제성을 선택하여 경량화의 방향을 취하였지만, 시각적으로 직접 드러나는 지붕형식에 있어서는 가장 화려한 팔작지붕형식을 선택하여 상품성을 높이하고자 한 의도를 찾을 수 있다.

Fig.16 Hipped&gable roof of Light-weight Hanok

Fig.17 Roof section of supporting post
(comparing to the case of non-supporting post)

다음으로는 나무널의 설치와 주심도리 위에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을 들 수 있다. 한옥의 처마에서 원형의 서까래는 한옥의 대표적인 의장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경량식 한옥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각재서까래를 사용함으로써 떨어질 수 있는 의장성을 나무널 설치를 통하여 가림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도리 위에 처마를 들어 올리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점 또한 특징적이다. <Fig.17>에서 보듯이 나무널의 설치 구조적으로 보머리와 도리의 뿔목을 가리게 된다. 하지만 도리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서까래를 설치할 경우 물매가 완만하게 되어 처마에 나무널을 설치하더라도 보머리와 도리가 노출되게 된다.

한옥의 부재가 하나의 의장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면서까지 보와 도리를 노출시키고자 했던 점은 한옥 의장적 가치 혹은 상품적 가치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량식 한옥은 당시의 법규나 공사원가 절감 및 대량공급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한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들은 192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과 공급 방식의 변화, 정부의 법적제제, 토지정리사업, 생활개선, 주택개량논의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옥 자체의 주거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여 왔으며 그 변화의 모습 중 경량식 한옥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경량식 한옥은 축부 구조체가 중량 목재를 사용하는 전통 한식 목구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상부의 지붕 구조체를 간략화하여 경량식으로 처리한 사례를 묶어 개념화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례로 한정한다면, 경량식 한옥은 여타의 도시한옥 유형과 발생 시기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경량식 한옥은 도시한옥이 지어지던 당시 전통식 한옥보다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법을 선택하면서 등장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는 1,752채의 도시한옥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616채가 경량식 한옥의 형식을 하고 있다. 이들 경량식 한옥은 남산동(238채), 대봉동(89채), 달성동(67채) 순으로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경량식 한옥이 ‘ㄱ’자형의 평면과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었다. 경량식 한옥들은 자료상 1934년부터 1985년까지 꾸준히 건축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례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통식 한옥과 유사한 형태를 추구하지만 처마가 짧고 지붕이 완만하며 직선적이다. 상부의 지붕 구조체는 단면 크기가 작은 경량 목조를 사용하였고 서까래는 50×50mm 이하의 각재로 만들어 등성등성하게 배열하였다. 이렇게 경량화, 간

략화된 지붕부 구조는 외관상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널을 대어 마감하였는데, 그림에도 기둥 상부의 결구부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지붕 구조체를 전체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동자주 형태의 부재를 도리 상부에 끼워 넣은 것이 특징이다.

경량식 한옥은 시가지건축취체규칙과 조선시가지계획령 등 당시의 법제도적 제한 조건을 따르면서도 한옥의 협소한 내부공간을 늘리고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처마를 짧게 내고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서까래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역할은 줄어들고, 이와 함께 서까래 단면 크기의 축소, 배열 간격의 증대 등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경량식 한옥은 상부 구조의 형태와 구축방식, 공법을 단순화하여 저렴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의도되었으며 규격화된 각재를 사용하여 목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고 치목에 드는 수고를 줄였다. 그러나 팔작지붕과 나무널 덧댄, 도리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처마를 들어 올려 도리를 가리지 않고 축부를 보여 주는 등의 의장적 수법을 적용하여 주택의 상품적 가치를 강조하였고 주택 소비자에게 있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경량식 한옥이 갖고 있는 건축적 속성으로 보건대, 이러한 유형이 비단 대구광역시 중구에 한정해서 나타났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시기에 걸쳐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량식 한옥이 당시의 주택시장과 기술적 수준, 법제도의 여건 속에서 경제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던 결과물이라는 점이고, 이 점에서 경량식 한옥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Lee, Kang-Min, Lee, Jin-Min, Kim, Hee-Jung, 『Plan for Surveying and Informatization of Hanok Housing Status』, AURI, 2011
2. Kim, Tai-Young, 「A Study on the Types and Changes of the Urban Houses in the Korean Inland during the Period 1910-1945」,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7 No.3, 1998
3. Yoon,J., Yoo,O., Park,S., Kim,S., Park,K., 『Korean housing and lifestyle』, Paju, KyoMunSa, 2007
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六百年史』 第4卷, 서울特別市, 1981
5. Park, Cheol-Ji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of 1930s as a Commercial Product」, T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6. Kim, Ran-Ky, 「A Study of Housing Production by the Native Civilian Capital in the Modernizing Ages of Korea :in the Focus of Korean Style Housing Constructions in the Japan Imperialism age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 No.1, 1992
7. Kim, Dae-Il, 「A study of the simplified Hanok in Seoul in the 1950s」, T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8. Jeon, Hoju, 「A Study on Development of Roof Construction Method for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House」, TM, Myeongji University, 2011
9. Kim, Yeon-Ju, 「A study on 2nd floor Korean-style house for the dwelling built in seoul from the 1920's to the 1950's」, TM, Myeongji University, 2002
10. Song, In-Ho, 「A study on the 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from 1930 to 1960」, TD,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접수(2013. 10. 14)

수정(1차: 2013. 12. 12)

게재확정(2013. 12. 23)